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학교생활과 진학지도

...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과목선택 지도
2.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3. 효과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

VI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학교생활과 진학지도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과목선택 지도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 1)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2)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4)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 과목을 도입한다.
- 5)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을 개설한다.
- 6)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 7)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이다.
- 8)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 9) 균형적인 학습을 위해 기초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다.
- 10)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에서 편성하는 전문 교과Ⅰ과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편성하는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1) 일반계 고등학교 및 자율형 고등학교 이수 기준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이수단위	자율편성단위
교과 (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 1학년은 공통 과목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한다.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한다. 공통 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는 8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 가능하다. 다만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해야 하고, 과학탐구실험(2단위)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해야 한다.(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학교는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전문 교과의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 가능하다. 위 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해야 하며,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 학교는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개별화된 이수 경로로 특성화함으로써 개인별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교원 수급, 시설 여건 등 현실적으로 편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교과목을 편성·운영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시도에서 승인한 교육과정은 신설과목 승인 신청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 편제 가능하다.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2)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과목 구성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		한문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한문Ⅱ

다. 학교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방안

1) 보통 교과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보통 교과를 대부분 편성해야 한다. 일반고 학생들이 보통 교과 수준의 과목을 골고루 잘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학문의 기초를 닦는 데 도움이 된다. 보통 교과 일반 선택 과목 중에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과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희망이나 학업계획, 역량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 학교 지정 과목은 국가 수준의 필수 이수 요건(공통 과목, 필수 이수 단위 등) 충족을 위한 정도로 최소화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 영역 구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학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일부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더라도 그 외에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3) 과목 위계에 맞는 선택 및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 '확률과 통계', '기하'는 공통 과목인 '수학'의 학습을 전제한 과목이다.
- '경제 수학'은 '수학 I'의 학습을, '미적분'은 '수학 I', '수학 II'의 학습을 전제한 과목이다.
- 과학, 한문, 제2외국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II 과목을 이수한다.

- 전문 교과 I 과목은 일반고에서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전문 교과 I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 교과 I 과목은 보통 교과의 과목을 배운 뒤에 해당 영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 직업 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 교과 II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전문 교과 II 과목에 필요한 실습 시설이 없는 경우 개설하기 어렵다. 만약 교내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학교 외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4) 이수 형태와 이수 단위를 고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 한 과목을 한 개 학기에 이수하는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년 이수 형태로 편성하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과도하게 적은 이수 단위로 운영할 경우 내실 있는 교과 수업이 어려울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성장을 기록·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수 단위를 확보해야 한다.

라. 대학 입시에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

1)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와 선택 과목

가) 학업 역량

① 학업성취도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 대학은 전공과 관련한 과목이라면 비록 그 과목이 어렵더라도 이수하기를 바란다. 국민대는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로 대학 학업 역량에 필요한 기초 학업 능력 이수를 평가 요소로 명시했다. 동국대는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소속 학교에서 제공된 교육과정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한 과정, 학교 및 소속 학교 계열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함을 명시했다. 서울시립대는 대학전공기초소양이라고 하여 전공 관련 교과 학업성취도 및 성적 추이, 주요 교과의 이수 상황 및 심층 내용을 제시한다. 서울대는 교과목 이수 내용을 지식의 양과 폭, 사고의 깊이에 대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제시했다.

② 학업태도 및 학업의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 학업에 대한 학생의 내적 동기와 의지를 학생의 과목 선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를 살펴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진 학생은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할 것이다. 학생은 자신의 과목 이수 이력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에 대한 동기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는 지원자의 선택 과목/선택 학습활동 이수 내용과 이수 과정을 고려한 개인 역량 파악, 학생의 교과목 선택 주도성, 도전 의지 등을 평가 세부 내용으로 제시했다. 고려대는 선택 가능 과목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 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도전 정신을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③ 탐구 활동 : 세부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전공적합성

■ 전공적합성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 관련 활동과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쌓아가는 과정을 평가한다. 전공적합성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

①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 세부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수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참고)

■ 통계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할 경우 미적분 수준까지의 수학 교과목의 학습이 필요하다.

■ 산업디자인과 등의 전공에서는 정보와 관련한 교과목의 이수가 필요할 수 있다.

- 동국대에서는 2020, 2021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일부 모집 단위의 전공 관련 교과를 밝혔다.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가 낮고, 전공 관련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 경희대 2017년 조사에서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면 어떠한 평가요소에 반영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전공적합성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학업역량이 31.4%로 나타났다.
-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의 자연계열 합격자의 과학II 과목 이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물리II는 합격자의 이수 비율이 지원자의 이수 비율에 비해 매우 높다.

■ 자연계열 전체 지원자와 합격자 간 과학II 이수비율 차이 ■

과목	과학II 이수 비율		
	지원자	합격자	합격자 비율 - 지원자 비율
물리II	35.57%	46.75%	11.18
화학II	72.70%	75.32%	2.62
생명과학II	68.94%	65.80%	-3.14
지구과학II	27.45%	32.47%	5.02

- 교과목의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과목의 수준과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전공 관련 교과목의 범위】

-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과목 선택은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전공을 지망하더라도 개인적 지향점이 다르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학생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엮어 전공 적합성을 만드는 것이 옳다.

여러분의 목표와 그 과정에 필요한 사회교과의 다른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경제학 이론을 한국사에서 활용하고 싶다.’, ‘한국의 철학사 연구를 해보고 싶다.’, ‘지리학을 활용한 한국사 연구를 해보고 싶다.’ 등의 목표를 가졌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목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가 아닌 「실용 경제」나 「윤리와 사상」 또는 「한국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서울대학교

②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평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을 지원 전공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학생의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험은 교과목의 이수이다. 학생이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전공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였을 것이다.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와 관련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의 선택 과목을 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한 결과임을 설명할 수 있다.

2) 선택 과목과 서류 평가에 대한 오해

가) 과목 인원수에 대한 오해

- 학생의 과목 선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이수 인원이 줄어들면서 상위 등급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300명이 한 과목을 이수하면 4%인 12등까지 1등급인데, 100명이 이수하면 4등까지만 1등급이니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수 인원이 적어서 불리하다는 주장의 함정】

예를 들어, 학교 전체의 인원이 300명인데, 300명이 단일한 A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와 300명 중 100명은 A과목, 200명은 B 과목으로 나누어서 이수하는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100명이 이수하는 A과목에서 1등급은 4명, 200명이 이수하는 B 과목에서 1등급 8명이 나온다. 총 12명의 1등급이 나오므로 300명의 학생이 모두 A 과목을 듣는 것과 1등급의 총 인원수는 학교 차원에서 보면 동일하다. 따라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불리한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대학들은 이미 평가 요소에서 과목의 인원을 고려함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학업능력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세부적인 평가 요소 중의 하나로 교과 성취도의 정성적 평가를 제시하면서 단순 석차등급 평균으로 판단하지 않음(학생 특성, 과목 특성, 시험 유형, 이수자 수 등 고려)을 명시하고 있다.

나) 전문 교과 이수 유리하다는 오해

-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정되는 전문 교과Ⅰ이나 전문 교과Ⅱ의 과목을 이수하면 대입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이 평가할 때에는 이수 인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통해서 학생의 선택 여부, 실질적 수업 내용을 살피고 있다.
- 대학들은 학생이 전문 교과Ⅰ을 이수한 경우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동국대는 지원 학생에게 ‘고급수학을 학교에서 이수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질문했다. 이를 통해서 해당 과목의 실질적인 수업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위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학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3)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과 교과 이수 가산점에 따른 과목 선택 지도

- 일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특정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도록 지정하고 있다(이 책 30쪽 참고). 주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대학 공부에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서울대는 2022 대입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내용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는 고교 내 교과이수 충실도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Ⅱ 2022학년도 대입 서울대학교 수능위주전형 교과 이수 가산점 반영 Ⅱ		
교과	유형 [I]	유형 [II]
수학	일반선택 4과목 또는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일반선택 4과목 또는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과학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2과목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2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3과목
사회	일반/진로선택 3과목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2과목

※ 유형 [I] 중 2개 이상 충족 시 : 서울대 산출기준에 의한 수능 성적에 1점 가산
유형 [II] 중 2개 이상 충족 시 : 서울대 산출기준에 의한 수능 성적에 2점 가산

* 사회는 국제계열 교과 포함
* 전문교과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함
*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은 교과이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Ⅲ 교과이수 내용에 따른 가산점 예시 Ⅲ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 기하	1점 가산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유형 [I] 2개 충족)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 경제 수학	2점 가산
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 사회문제 탐구	(유형 [II] 2개 충족)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2점 가산
과학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 물리학 II, 화학 II	(유형 [II] 2개 충족)
사회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 여행지리	2점 가산
과학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유형 [II] 2개 충족)

- 서울대는 2022 정시에서 영어에서 3등급을 받은 경우 2점 감점이다. 서울대 가산점은 과목의 이수 여부만을 판단하는 구조 탓에 응시인원 대다수가 2점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 선택인 수학 I·II와 확률과 통계를 이수한 뒤에 미적분이나 경제수학, 기하, 수학과제 연구 중에서 1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인문계열 모집단위 희망자라면 수학, 사회 교과로 가산점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 교과는 학생들이 일반 선택에서 3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 진로 선택에서 1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자연계열 모집단위 희망자는 수학, 과학 교과로 가산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 I·II와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4개 일반 과목을 이수하거나 일반선택 3개와 기하 등이 포함된 진로선택 1개를 이수할 수 있다. 과학 교과는 2점의 가산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2개 과목에서 과학II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마. 대학의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지도

1) 상경계열

- ① 경영, 경제, 회계, 부동산, 무역·유통학과의 경우 기업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수리적인 자질과 분석력, 판단력 및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학과이다.

이런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고교과목은 국어와 영어 일반선택 전체 과목이다. 그리고 사회과학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학교과를 매우 중요시한다. 일반선택과목의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와 진로선택 과목에서 기하, 경제수학이 이에 해당 된다. 사회교과의 일반선택 중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충실히 공부한 뒤 진로선택과목 중 사회문제 탐구를 통해 좀 더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 ② 광고, 홍보, 언론매체 관련학과는 매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외국어실력, 사회변화에 대한 민감성, 미적 감성이 필요하다. 이런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고교과목은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의 일반선택 전체 과목이다. 사회교과 일반선택의 경우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사, 세계지리가 있고, 진로선택에서는 사회문제탐구를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깊이를 더 할 수 있다. 과학교과 진로선택에서 과학사, 생활과 과학 등도 관련성이 있다.

2) 사회과학계열

사회과학에는 심리학, 사회복지, 아동학과 등이 있다.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을 연구한다. 이런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고교과목은 국어와 수학, 영어 일반 선택 전체 과목이고 탐구영역에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관련 있다. 사회복지, 아동학과에는 정치와 법이 관련되며, 심리학에는 과학교과의 일반선택에서 생명과학 I, 진로선택에서 생활과 과학과도 관련이 있다.

3) 법학행정계열

법학과 행정학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분석, 논리적 표현력이 요구되는 전공이다.

이런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고교과목은 국어와 영어 일반선택 과목 전체와, 수학과목의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진로선택과목에서 경제수학이 있다. 사회과목의 일반선택 중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과 진로선택의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가 관련이 있다.

4) 어문계열

문학과 어학 관련 전공의 경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해당 언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폭넓게 습득해야 한다. 문학과 어학 관련 분야 전공강의에 대비하여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주요 고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의 일반선택 전 과목과 사회 교과목의 일반선택의 경우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진로선택에서 사회 문제탐구, 고전과 윤리 등이 있다. 또한 과학 교과목의 진로선택에서 과학사, 생활과 과학, 예술 교과목의 일반선택 등도 기본 학습에 도움이 된다.

5) 인문계열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으로 역사, 고고학, 철학, 윤리 등이 있다. 역사학, 고고학, 철학, 윤리와 관련한 주요 고교과목은 국어과목의 일반선택에서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진로선택에서 고전읽기가 관련이 있다. 영어는 전체 과목이 관련이 있다. 사회교과목의 경우는 역사학, 고고학에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철학과 윤리에서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과 관련된다.

6) 농림·수산계열

농업생명과학, 산림학, 수산학 등이 있다. 이 학과들은 농작물, 산림, 수산물의 생산, 관리, 이용, 보존 등과 관련된 전공이므로 전공 기초 과목은 생명과학 과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련 분야 전공강의에 대비하여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주요 고교과목은 과학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인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과 진로선택 과목의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목이다. 그리고 관련 통계활동 분석을 위한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수학교과목의 확률과 통계의 이수를 권장한다.

7) 의학계열

의학계열은 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등이 있다. 의학계열 관련 분야 전공강의에 대비하여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주요 고교과목으로는 국어교과목의 화법과 작문, 영어교과목의 다양한 과목, 사회교과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교양교과목의 심리학 등이 있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과나 본과 중 의료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사회교과목의 정치와 법을 이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 수학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며 화학Ⅱ, 생명과학Ⅱ,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8) 보건계열

보건계열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약학과 등이 있다. 보건계열 관련 분야 전공강의에 대비하여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주요 고교과목으로는 과학 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화학Ⅰ, 생명과학Ⅰ 진로선택 과목의 화학Ⅱ, 생명과학Ⅱ,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등이 해당한다. 보건계열에서는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과 지식 획득에 필요한 의사소통 관련 과목 및 심리학, 사회학, 인간관계학 등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과목의 기초로는 사회 교과 중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양교과 중에서 보건, 심리학 등도 관련이 있다.

9) 생활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은 식품영양학과 의상학과(의류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영양학 관련 분야 전공강의에 대비하여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주요 고교과목으로는 생활·교양 영역의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 과목 등이 있으며 과학 과목 중에서는 일반선택 과목의 화학Ⅰ, 생명과학Ⅰ 및 심화 선택 과목의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의 과목이 관련이 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식품영양학 관련 통계 자료의 해석 능력도 요구되므로 사회 교과의 사회·문화,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수학교과의 확률과 통계 과목도 관련이 있다. 의상학과와 의상디자인과 연관된 과목은 미술 교과의 과목이다. 또한, 복식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계사 등 역사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패션 관련 비즈니스의 기초가 되는 과목은 경제 과목이다. 과학 과목 중에서는 일반선택 과목의 화학Ⅰ, 생명과학Ⅰ 및 진로 선택 과목의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의 과목이 관련이 있다. 생활·교양 영역의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 과목 등도 관련이 있다.

10)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은 탐구하는 대상에 따라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천문·지구과학, 환경과학과가 있다. 자연과학계열과 관련하여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주요 고교과목으로는 과학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등 전공 기초내용뿐 아니라 전공에 따라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과학사 등의 전반적인 과학분야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수학교과에서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 등이 해당된다.

11) 건축·환경공학계열

건축, 환경공학계열은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과가 있다.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

과의 기초가 되는 고교과목은 수학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과학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물리학 I, 화학 I, 지구과학 I 그리고 생활교양교과의 기술가정, 정보, 환경 등이 해당한다. 또한 건축학, 토목학 등에서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건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회교과의 일반선택 과목 중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로선택 과목 중 기하, 수학과제 탐구, 공학일반, 창의경영,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과학사 등도 학습할 수 있다.

12) 기계전자계열, 정보컴퓨터계열

기계전자컴퓨터계열은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조선해양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이 있다. 기계전자컴퓨터계열 학과에서 기초가 되는 고교과목은 수학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학교과에서는 물리학 I, 화학 I, 지구과학 I, 생활교양 교과의 기술가정, 정보,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기하, 수학과제 탐구, 진로영어, 물리학 II, 화학 II,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과학사, 공학일반, 창의경영, 지식재산일반 등이 있다. 모든 공학전공에서는 기술공학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창업 등을 고려한 기업경영 및 지식재산권 관리를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다.

13) 산업, 재료공학계열

산업공학과는 인간, 물자, 정보, 설비 및 기술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시스템을 설계, 분석, 운용 및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전공 기초과목은 수학, 경영학, 컴퓨터 과목이 주를 이룬다. 재료공학은 공업재료의 제조공정, 성질, 구조,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금속, 요업, 고분자 재료를 비롯하여 첨단재료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기초과목은 재료과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공학수학 등이 있다.

산업·재료공학계열 학과에서 기초가 되는 고교과목은 수학, 물리학, 화학, 컴퓨터 과목이 주를 이룬다. 수학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학교과 중 물리학 I, 화학 I 이다. 생활교양교과의 일반선택 과목 중 기술가정, 정보 등도 관련이 될 수 있다. 진로선택 과목은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학 II, 화학 II,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공학일반, 창의경영, 지식재산일반 등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모든 공학 전공에서는 기술공학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창업 등을 고려한 기업경영 및 지식재산권 관리를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다.

14) 예술계열

예술계열은 ‘아름다움’을 중심 개념으로 어떤 ‘형상’에 의해 표현하는데 관련된 음악, 미술, 연극, 공연 등 여러 분야 중에 하나를 학습한다. 예술계열은 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표현함으로써 예술 표현 능력은 물론 예술문화에 대한 인문학적인 실천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술계열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필수이수과목을 제외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예술 분야의 전문교과에 대한 이해와 예술교

과 전문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술전문성 함양을 위해 각 예술 분야에서 예술 표현 능력이 필요한 실기과목과 예술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추는데 필요한 이론 과목도 관련이 있다.

15) 체육계열

운동, 스포츠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인간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다. 인간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어야 함으로 운동 실기시험 능력은 물론 스포츠문화에 대한 인문·사회·자연과학적 측면의 실천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체육(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생활, 체육탐구)을 포함한 전 교과 영역의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되 전공하고자 하는 체육 분야를 고려한 특화된 선택 과목 이수능 희망 학과의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6) 교육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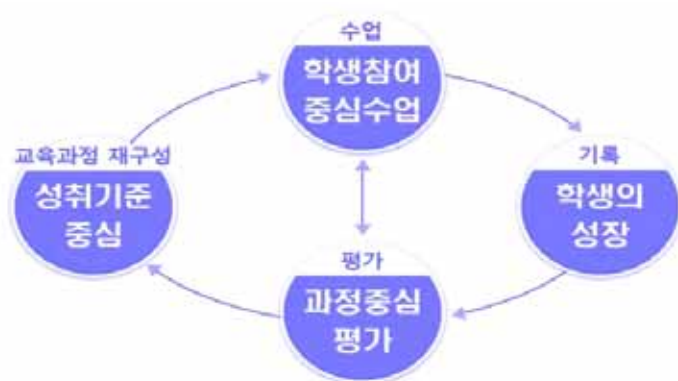
교육계열은 가르치는 대상에 따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그리고 가르치는 교과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로 나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기본적 바탕이 되는 교육학과도 있다.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의 경우 고교에서 이수할 과목도 폭넓고 다양하게 해야 하므로, 모든 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을 골고루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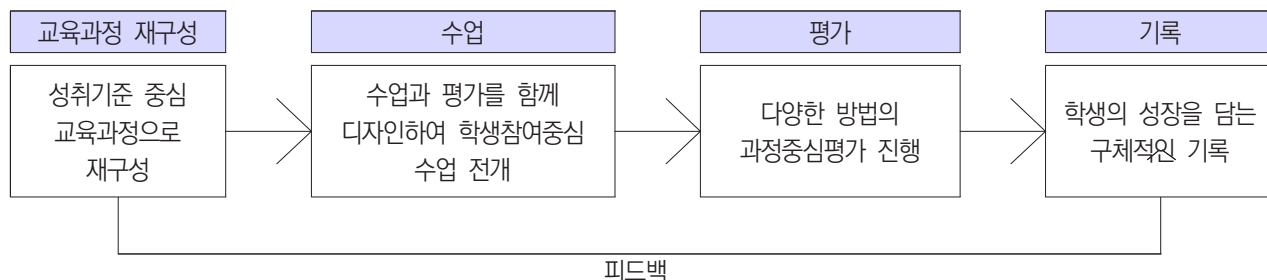
학생 선택 중심의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하 ‘교수평가’) 일체화는 진도 위주의 수업과 서열 중심의 평가, 대학 진학을 위한 기록 등 교육의 파행과 왜곡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라 할 수 있다. 교수평기는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하여 교과와 교육과정을 성취 기준 중심으로 재구성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활동의 기록을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을 하나의 연속된 교육 활동으로 보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교수평가 일체화인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¹⁷⁾



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의 단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과 평가, 기록을 일체화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7)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 교육활동 안내자료

교육과정과 수업이 분절되면 교과서와 진도에 집중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 교사 중심의 수업진행으로 인해 학생의 수업 참여도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수업 이후 수업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제식 평가가 실시되고, 학생들이 수업의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하기 어려워진다. 이렇듯 수업과 평가가 따로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성장에 대한 관찰이 어려워지고,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제대로 기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일체화하는 것이 교수평가 일체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평가 일체화는 학생의 성장과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시작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본 전제가 되기도 한다.

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

교육과정 재구성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성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와 관련된 능력을 진술한 것으로 평가의 실질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¹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학습에 핵심이 되는 성취기준들을 정선해야 한다. 이는 교수평가 일체화가 교사들에게는 수업 활동의 여유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감축, 적정화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수업으로 수업의 형태가 변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 핵심성취기준의 개발

핵심 성취기준의 개발은 교과 교수·학습 활동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교과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특성, 학교의 여건,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핵심 성취기준은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교사가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일반 성취기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교수·학습의 강약 조절이 용이해지고, 교수·학습의 역동성을 키워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¹⁹⁾

18) 윤현진, 박선화, 이근호(2008).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연구.

19) 정영근(2015),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의 이해와 적용

Ⅱ 핵심 성취기준을 통한 교과 교육 개선의 주안점과 기대 효과 Ⅱ

개선의 주안점		기대 효과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재구성의 활성화 - 강조, 중략, 생략, 압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교육의 경제성 제고 :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 극대화 -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내용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위주 수업 탈피, 수업 방식의 다양화 - 체험, 토론, 협력, 프로젝트 학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과정의 점검 - 교수·학습 결과의 질 관리 	

2) 핵심성취기준의 개발 원리

핵심 성취기준 개발(선정)은 크게 4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 목표에의 부합성’, ‘교육 내용의 중요성’, ‘교육 내용의 연계성’, ‘교수·학습 활동의 실행가능성’이 그것이다. 이 원리들은 모든 교과(목)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리이며 각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 개발(선정)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변형, 가감 등을 통하여 각 교과(목)별 핵심 성취기준 개발(선정) 원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원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리 1. 교과(목) 교육 목표에의 부합성

- 교과(목)의 교육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 내용 영역별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원리 2. 교과(목) 교육 내용의 중요성

- 교과 학습에 필수적인 내용(지식, 기능, 이해, 태도)을 다루고 있는가?
- 일반 성취기준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선정되었는가?
-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고차적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특정 내용(영역, 주제)에 편중되거나, 일괄 배제되지 않도록 선정되었는가?

원리 3. 교과(목) 교육 내용의 연계성

- 선수 학습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성취기준이 선정되었는가?
- 후속 학습에 기초가 되는 성취기준이 선정되었는가?
- 핵심 성취기준간의 상호 연계와 논리적 위계가 고려되었는가?
 - 학교급간, 주제 간, 영역 간, 교과(목) 간

원리 4. 교과(목) 교수·학습의 실행 가능성

- 학습자의 학습 가능성이 고려되었는가?
- 학습 양과 학습 부담이 적정한가?
- 교수·학습 활동의 실행 가능성이 높은가?

라. 학생참여중심수업의 구안

성취 기준별 또는 차시별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는 내용에 대한 설계와 실천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설계와 실천이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참여중심수업은 학생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활성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는 이러한 수업은 협력학습이나 협동학습, 토의·토론, 탐구, 프로젝트 해결의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학생참여중심수업은 교사중심 수업과 달리 교사는 동기유발과 학습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답을 스스로 찾아가며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수업을 디자인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과 절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참여중심수업을 구안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이 참여하되, 수업의 설계과정에서 평가를 의식하여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과정에 교과와 기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의 설계, 융합적 사고 및 협동학습의 경험 제공, 실생활에 적용되는 지식의 탐구,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의 진로분야를 고려하고,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의 능동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르는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는 방법과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이 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학생참여중심수업 구성의 틀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업의 개선

- 교과수업을 성취기준에 따라 재구조화하여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

2. 활동중심 수행평가 및 정성평가 계획 수립

- 1회성 평가 혹은 과제 제시형 평가가 아닌 과정중심 평가를 기획
- 교과별로 한 학기에 4-5차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형 수행평가 실시 계획 수립

3. 학생 활동중심 수업 전개

- 독서, 토론 논제, 활동의 주제 등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기획
- 수업 디자인 - 활동의 과정과 절차, 자료조사 방법, 보고서 양식 등을 연구/개발
- 학생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조율

4. 활동의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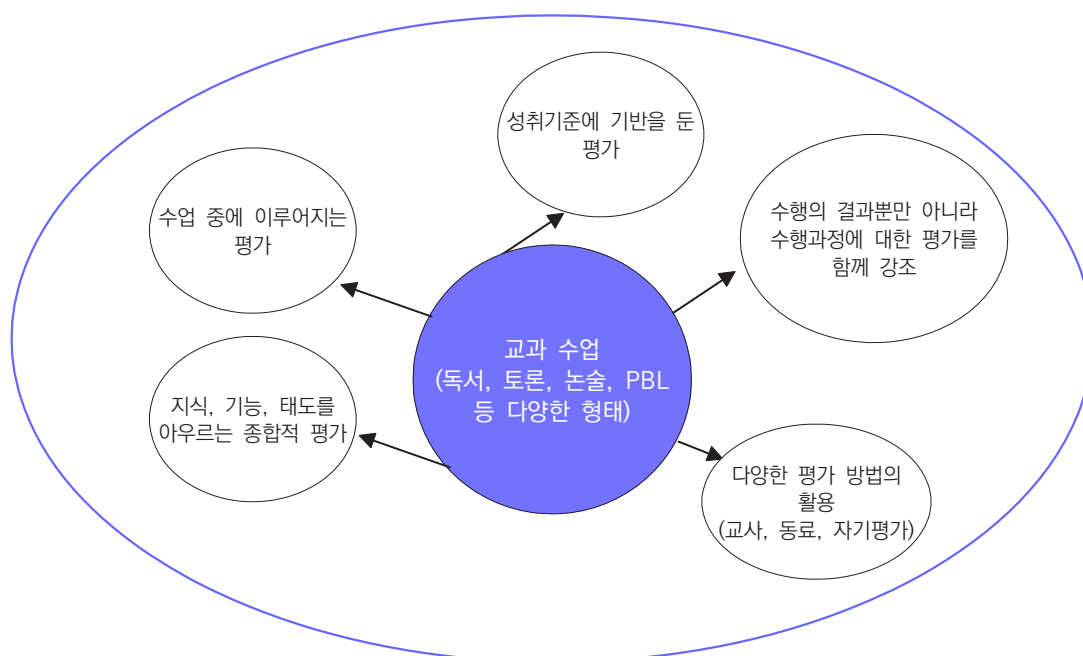
- 활동중심/과정중심 수업을 통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을 익힌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활동의 확장 방법 안내(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확장)
- 주제를 더욱 심화탐구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공/추가 자료조사 및 탐구에 대한 안내

마. 과정중심평가의 방법

과정중심 평가는 수업 중에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법으로 학기 초 교수·학습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를 함께 계획하여 교수·학습의 과정에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의 성장을 누가 기록하면서 학기말 평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 평가는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총합적 평가가 아니라 진단적, 형성적 평가이며 평가의 형태 역시 교사평가뿐만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중심평가의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을 담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문서이다. 학생부에는 수업 활동을 통해 드러난 개별적인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함께 평가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성취수준에 대한 도달 정도, 학생의 소양 및 태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교과학습발달사항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탐구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교수평가 일체화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되게 된다. 핵심성취기준의 분석 과정에서 교과의 성격을 잘 살리면서도 학생들이 전공분야별로 할 수 있는 탐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면 모듈별로 개별화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태도와 역량,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공분야별 심화 학습의 결과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다.

1)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대학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살펴보면 역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다. 또 교사가 작성한 특기사항을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점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타 대학에서 언급한 우수 작성사례들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같은 기준에 근거에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학교보다 학생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보가 있는가?
2.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정보인가?
3.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 변화에 대한 정보는 있는가?
4. 학생 개인의 학업 역량과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가?

이에 따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떠한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틀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면 구조적으로 잘 서술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1. 소개

학생 개인 특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학생의 역량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2. 동기

활동 참여 동기, 도서 선택 이유, 주제 선택 이유 등을 요약적으로 제시

3. 과정

보고서(발표)의 제목, 주제, 핵심내용(보고서, 발표의 과정과 결과 요약), 과제 수행 시 역할, 활동 태도, 과제를 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개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4. 결과(평가)

변화와 성장, 후속 연계 활동,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업역량과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문구로 마무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등을 분석해보면,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1. 학업태도의 우수성이 드러난 특기사항
2. 수행한 과제나 학생의 역량에 대한 추상적 내용 기술보다는 개인 특성이 기술된 특기사항

최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들은 때때로 학생의 우수성과 수행한 과제를 설명하는데 집중하는 나머지 학생이 보이는 태도나 인성 측면의 우수성을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대학에서는 학업 태도 측면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학생에 대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1. 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의 사례
수업시간에 한 번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성실히 임하는 학생임.
2. 한국외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우수사례
밝은 표정과 과학적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교사와 눈을 맞추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갖춘 학생임.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한 진술이고, 때로는 ‘이러한 기술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구이지만 학생 개인의 특성과 전체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1. 중앙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우수사례

추상적인 내용 기술에서 개인 특성 기술로 변화하고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사례

(수학) 수학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 원리, 법칙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일반적 문제해결 기법뿐 아니라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탐구하는 능력이 우수함.
(추상적인 내용 기술)



(수학) 수업시간에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는 적극적 참여를 1학기 동안 10번 이상하여 상점을 받음. 수학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가 높으며,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능동적 수업태도가 돋보임. 조별 활동을 통해 함수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함. 한달간 진행된 '거꾸로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조요원으로 아침마다 30분 일찍 등교하여 1일 과제를 미리 해결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줌. (개인 특성에 대한 기술)

2. 한국외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우수사례

(화학1) 화학 실험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서 꼼꼼하게 과정을 설계하고 능숙한 손동작으로 기구를 다룸. 조원들과 잘 협력하면서도 차분하게 실험을 주도하였으며 실험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끝까지 남아 뒷정리를 함. 수소와 산소의 발생비가 2:1과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원인을 유추하였으며 발생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다른 실험 조건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함. 주기율표 수업 시 원소들의 특징과 용도를 자신이 읽은 '사라진 스푼(샘 킨)'의 이야기와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급우들이 재미있게 기억하게 도와줌. 또한 기하이성질체를 설명하면서 수학의 도형의 대칭 이동 개념을 활동하는 등 과목 간 연계 활용성이 우수함. 화학 소책자 만들기에서 ○○○ 아이스크림에 착안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함.

위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활동중심수업과 과정중심평가의 결과물인 교과수업에 대한 기술은 학생 개인에 대한 특성과 역량, 학생이 수행한 과제와 학생의 노력,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과수업과 교내 비교과 활동의 연계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탐구활동을 설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교과에서 배운 방식을 응용하여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서 이러한 역량이 연계, 확장, 심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된 학생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탐구한 내용이 학생부의 다양한 항목에 기재되면 그 자체로 학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한 CDA 전문가 과정에서 '학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한 서울대학교 권오현 교수는 향후의 고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²⁰⁾

고교 교육의 바른 대응 방안



교실수업과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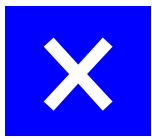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과수업 및 평가의 변화는 결국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효과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

대입 준비를 하는 학생의 입장과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과 고민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입 준비 지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대학 진학은 어려운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확대되고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고교 생활을 하는 것에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활동 측면에서 유익한 면이 있지만, 고교 교육과정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진로희망이 필수요소로 여겨지는 부담보다는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길 권장한다. 더욱이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내 진로희망은 전형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대학 입시 면에서 보면 초기 입학사정관전형은 아주 예민한 전공적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진로 관심과 성숙도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주었지만, 현재 운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 중 전공적합성의 광의적 적용, 계열적합성으로 정의하는 기본학업 역량의 강조 등을 생각하면 대학 입학 후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역량, 관심, 지적 호기심 등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학교육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수학교과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졸업 후 진로가 수학자보다 수학교사가 대부분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성실한 학교 생활 경험,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 등이 유의미하므로 수학을 중심으로 보편적이고 균형감 있는 일반 교과에 대한 관심과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

대학 입학 후 학적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마다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전공 이수제도를 일반적인 단일 전공, 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외에도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할 때의 전공으로만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심과 역량에 맞게 다양한 경로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학할 때 필요한 뚜렷한 진로 목표나 예민한 전공적합성 보다는 보편적인 학업역량을 갖추는 것을 바탕으로 관심에 맞는 진로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대학의 전공 이수 제도의 일부이다.

Ⅱ 자료 Ⅱ 서울대 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과정으로 소속 학과장이 관련 전공의 교수로 구성된 학생설계전공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합니다.

·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평점평균 3.3(B+) 이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생설계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표, 학생설계전공 이수계획표, 주전공 이수계획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대학교 포털mySNU 혹은 서울대학교 App에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소속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표 다운로드

학생설계전공 이수계획표 다운로드

주전공 이수계획표 다운로드

신청절차

- 학생설계전공 참여 학과(부) 소속 학생 중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중에 당해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 학장은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를 선발하고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Ⅱ 자료 Ⅱ 건국대 연계전공

- 정의 : 2개 이상의 학부,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

- 현황(일부)

전공명	주관대학 (학과)	참여학과
디스플레이공학연계전공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물리학과, 화학과,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부
통일인문교육연계전공	문과대학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통일인문학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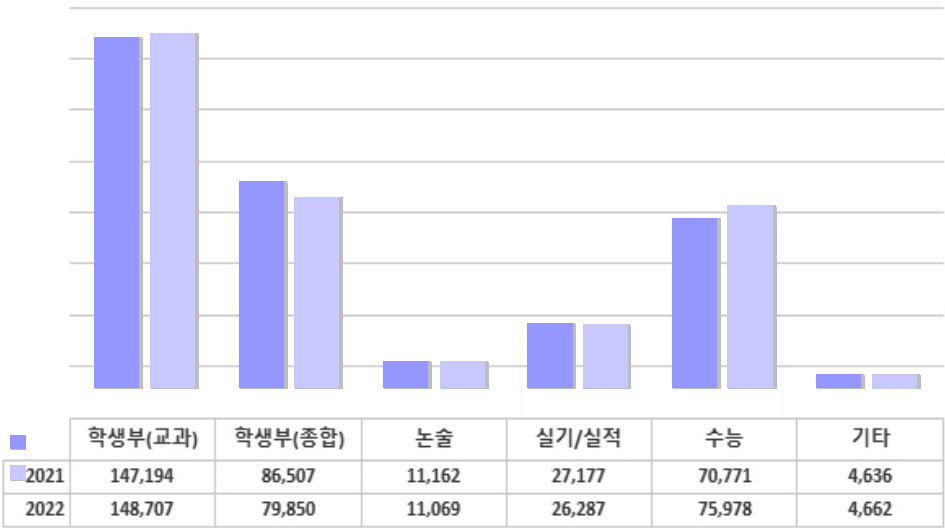
추가로 이해할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전형, 실기/실적 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이 있다는 점, 이 전형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진로와 관련한 요소가 직접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이다.

- 2022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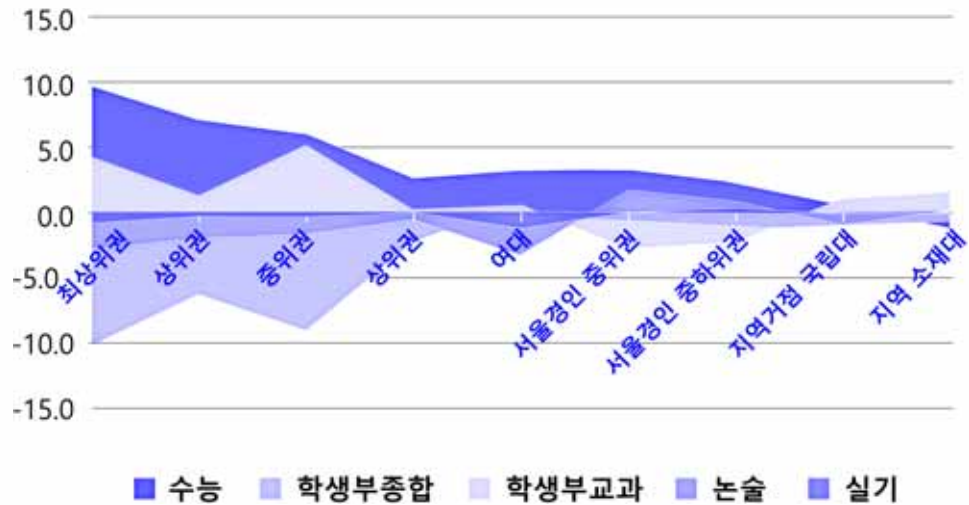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전체인원은 전년대비 894명 감소되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 감소(-6,657명)와 수능위주전형의 선발인원 증가(5,207명)이다. 비율상으로 보면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은 2021학년도 20.37%에서 1.56% 증가한 21.92%를 선발할 예정이다.

■ 전형별 선발인원 현황 (대교협 2022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



인원이 늘어나면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계는 전체적인 경향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래의 그림처럼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여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였지만 하위권대학은 변화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으로 모든 대학이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의 적성, 관심, 역량과 현재까지의 준비도 등을 참고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 2022 전형별 비율변화(범주별) 예시 ■



첫 번째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인원 변화가 있는가이다. 다수의 대학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향을 기반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만, 변화의 폭이 큰 두 대학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의 경우처럼 경향성은 수능위주전형의 확대일 수 있지만, 홍익대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고 수능위주전형이 축소될 수도 있다.

Ⅱ 2022-2021 전형별 모집인원 변화 예시 Ⅱ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실적	수능	기타
고려대	2022	839	1,523		73	1,678	75
	2021	1,158	1,978		187	761	
	증감	-319	-455		-114	917	75
홍익대	2022	600	1,486	379	76	1,462	72
	2021	740	1,252	383	81	1,559	
	증감	-140	234	-4	-5	-97	72

두 번째는 수능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확대된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의 필수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대학의 전형 설계 특성상 수능의 역할이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다. 광운대, 한양대의 경우처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만 수능의 역할을 하지만 고려대, 이화여대의 경우처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외에 수시모집의 대부분 전형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2022학년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수능 활용 유무에 따라 선발인원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Ⅲ 2022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과 비율 예시 Ⅲ

구분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수능	기타
고려대	인원(명)	839	1,523		73	1,678	75
	비율(%)	20.03	36.37	-	1.74	40.07	1.79
홍익대	인원(명)	600	1,486	379	76	1,462	72
	비율(%)	14.72	36.47	9.30	1.87	35.88	1.77

Ⅳ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활용에 따른 구분 현황 예시 Ⅳ



따라서, 전체의 통계, 총론적인 설명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수능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생에 맞게 준비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지원자 구분에 따른 합격 비율을 보면 재학생의 지도 방법은 개별적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

■ 2020 대입 시기별 지원자 구분에 따른 합격률 예시 ■

구분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수시	재학생	89.4		74.4	94.0
	졸업생	6.0		24.5	6.0
정시	재학생	37.7	31.9	20.0	29.3
	졸업생	58.8	68.1	78.0	70.7

•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지원해야 하나?



전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형요소 중 50% 이상 주요소에 의해 구분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시험, 서류, 적성전형(2021기준) 등이 전형요소에 포함되더라도 교과성적이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형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므로 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유리한 것은 맞는 말이다. 단, 면접시험, 서류, 추천여부, 교과 성적의 반영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유무 및 경중 등에 의해 교과 성적의 절대적 역할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른 전형에 비해 교과 성적의 역할이 커 합격자의 교과 성적 결과가 높은 것은 맞지만 교과 성적만이 합격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지원자 교과 성적의 상대적인 구성과 관계를 고려하면 3년간 모든 교과 성적에 우수한 학생 외에도 일부 교과(또는 학년)가 우수한 학생, 적당한 교과 성적에 교과활동이 우수한 학생, 교과 성적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유의미한 학생 등 다양한 층위의 지원자가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한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전형요소가 교과위주 전형이지만 주 전형요소인 교과 외 비교과의 반영여부, 반영범위, 반영방법에 따라서도 교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022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요소 및 비율 예시 ■

대학	학생부(교과) 전형명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00			90	출결(10)
경희대	고교연계전형	100			80	출결(10) 봉사(10)
고려대	학교추천	100			80	기타(20) (학생부종합평가)

대학	학생부(교과) 전형명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서울과기대	고교추천전형	33.3	33.3	33.4	100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	100			100	
중앙대	지역균형전형	100			70	출결(15) 봉사(15)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동일한 계열이지만 탐구영역의 반영범위, 등급 합의 충족 조건, 한국사의 적용여부 및 조건 등이 상이하여 교과 성적 외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역할의 정도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2022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예시 Ⅱ

대학	인문	자연
경기대	국수영탐(1) 2개 등급 합 70이내, 한국사(6)	국수영과(1) 2개 등급 합 70이내, 한국사(6)
경희대	국수영탐(1) 2개 등급 합 50이내, 한국사(5)	국수영과(1) 2개 등급 합 50이내, 한국사(5)
고려대	국수영탐(2) 3개 등급 합 50이내, 한국사(3)	국수영과(2) 3개 등급 합 60이내, 한국사(4) [의예] 국수영과(2) 4개 등급 합 50이내, 한국사(4)
서울과기대	국수영탐(2) 2개 등급 합 60이내	국수영과(2) 중 2개 등급 합이 60이내
이화여대	미적용	
중앙대	국수영탐(1) 3개 등급 합 60이내, 한국사(4)	국수영과 중 2개 등급 합 6~70이내, 한국사(4) [약학] 국수영과 4개 등급 합 50이내, 한국사(4)

마지막으로 교과성적의 반영범위(교과/과목수/진로선택 반영 유무 등) 및 반영지표에 따라서도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정의가 상대적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대학별 환산점수를 이용한 석차연명부 내에서의 움직임과 수능충족여부 등을 지원 및 합격의 가늠자로 적용한다.


Ⅲ 2022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예시 Ⅲ

대학	반영교과	과목수	진로선택	반영지표
경기대	국수영사/과	전과목	미반영	석차등급
경희대	국수영사/과	전과목	교과별 2개	석차등급, 기타
고려대	전교과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성취도 및 성취수준별 학생비율
서울과기대	국수영사/과	전과목	가산점	석차등급
이화여대	국수영사과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기타
중앙대	국수영사/과	전과목	10%	석차등급, 성취도

결과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은 교과 성적이 나빠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모든 과목, 모든 학년의 교과 성적이 모든 학생이 우수할 수는 없으므로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범위와 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해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2022 대입에서는 추천전형의 인원제한(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이 지원자 규모의 구성, 교과 성적 분포의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과 범위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비교과가 축소되고 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건가?

 학생부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18.8.17.), 대입제도 공정성강화방안(2019.11.28.)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록의 범위, 방법 등이 개선되었다.

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향(2019.11.28.) Ⅱ

구분		2021학년도 (현 고3)	2022~2023학년도 (현 고1,2)	2024학년도 (현 중3)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연간 500자		
비교과 영역	자율활동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연간 500자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제한적 기재 가능	소논문기재 금지	
	봉사활동	연간 500자	특기사항 미기재	
		실적 및 특기사항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모든 교내수상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3년간 6건) 대입 반영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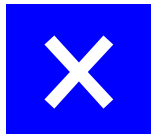
개선의 방향은 비교과영역이 축소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교육과정 내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재 분량이 1,800자가 축소되어 기재된다. 또한 대입 반영 축소로 일반학교 이수 단위 기준으로 34단위 중 30단위에 해당하는 교과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교과역할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교과 중심의 정량적 평가가 주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말하는 학업역량이 강화되고, 학생개인의 개별화 기록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이해해

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과정의 의미있는 선택(필요한 과목, 배우고 싶은 과목 등)에서 참여, 연계, 심화 등 포괄적인 수업활동과 개별화된 관찰, 과정 기반의 평가가 강해진 것이다.

-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하나를 선택한 후 제공된다고 하는데 교과, 인성, 전공적합성 등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할까?



2022학년도 대입 이전에는 수상경력을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지원자의 열정, 성실성,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이 가능하였다. 재구성하거나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학생부입력기준일까지 해당하는 지원자의 모든 수상경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수상경력의 제공이 제한되면 평가가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평가의 관점이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지원자가 수상한 많은 상 중 하나를 선택을 하였다는 것은 선택한 상이 지원자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므로 선택의 의미, 다른 항목을 통한 준비 및 진행 정도, 수상 후 학생의 변화 등을 함께 보며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수상 하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불리를 따지며 전략적으로 상을 선택하기 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 등을 이해하며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면접시험은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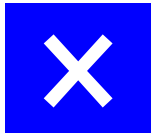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여러 장점 중 학생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꾀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자율 동아리 포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고픈 것을 할 때 학생의 참여도, 열정, 성실성은 제고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이 운영되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운영된다면 별도의 말하기 연습이 없이도 면접시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해진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단계별 전형의 합격자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례에서 1단계 순위와 합격자의 순위는 인과관계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학생부의 기록은 이미 충실하고 면접시험에 의한 변별력이 강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시험은 서류 확인 면접시험으로 말을 잘 하는 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닌 학습과 활동간의 학업적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냐를 묻고 있다. 이런 면접시험의 경향을 생각한다면 단기간의 청산유수형 말하기 연습보다는 말은 다소 서투리도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부

분에 대하여 말하는 능력을 수업을 통해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 지원하고 싶은 학과(부)에 적합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른 학과(부)를 지원해야 할까요?



철학과를 지원한다면 어떤 능력, 어떤 교과를 이수하고, 어떤 활동 참여 등이 필요할까? 철학과 관련된 교과 이수?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정도의 과목이 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철학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다음은 서울대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의 일부이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학문답게 모든 교과와 관련이 있지만 어떤 교과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중략)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택이 원활한 교과와 과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은 물론 인문대학의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일 것입니다. 특히 철학에서는 밀도 있는 글을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국어에서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특히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므로 교과서의 지문들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중략) 같은 맥락에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략) 그리고 의외로 철학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교과가 수학입니다. 철학의 기본이 어떤 주장을 논증하는 것인데 그러한 논증의 구조를 국어나 영어보다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수학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다음은 서울시립대의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단위 인재상의 일부이다.

■ 2021학년도 모집단위별 인재상 : 서울시립대 자료 인용 ■

모집단위	인재상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및 탐구영역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 • 통합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융합 학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학생 •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과학 및 수학 교과목에 대해 깊은 소양을 갖춘 학생 •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 • 타인과 공동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능력 및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학생

두 인재상을 보고 해당하는 모집단위를 예상해보자. 하나는 인문계열이고 하나는 자연계열인 것은 알 수 있지만, 모집단위가 특정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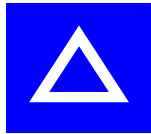
A 모집단위는 세무학과, B 모집단위는 화학공학과이다. 서울시립대가 인재상을 모호하게 제공하여 특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학 입학 후 필요한 능력이 특정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것만이 학업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사례를 보면 대학은 특정한 과목의 이수, 특정한 활동 경험 보다는 보편적인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원하는 모집단위에서 특정지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고교생이 가질 수 있는 학업 능력과 지적호기심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좋다.

• 학생이 선택한 과목으로 이뤄진 교육과정이 대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선택권의 확대이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된 대입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럼, 학생 선택 과목으로 이뤄진 교육과정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학생의 선택만으로 좋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보는 것에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이수하였냐가 중요하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모집단위에 알맞는 과목을 선택했느냐이다. 배우고 싶은 교과목 이외에도 물리Ⅱ, 경제, 심화영어처럼 어려워도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목을 이수했느냐가 중요하며, 선택한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수업을 참여하고, 학습경험이 이뤄졌으며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 성장하는 지가 보여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지정 과목만을 이수한 학생보다는 관심과 역량을 기반으로 학생의 의지대로 구성하고 이수한 교육과정이, 단순 이수가 아닌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 선택되고 이수가 되어야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